

카카오, 계열사 축소 등 '내실 다지기' 마무리 … 에이전틱 AI 시대 본격화

입력 2026.01.04. 오후 4:02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지난해 9월 '이프(if) 카카오' 컨퍼런스에서 키노트 발표를 하고 있다. 카카오

카카오가 최근 진행한 계열사 축소 및 재무 건전성 확보 등의 내실 다지기 과정을 마무리하고 올해 '에이전틱 AI(Agentic AI)' 시대를 본격적으로 연다.

카카오는 정신아 대표 취임 후 132개였던 계열사를 90여 개로 축소하고 비용 효율화 과정을 진행해 2025년 3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하는 등 기초체력을 회복했다. 이러한 성과는 일회성이 아닌 지 가능하면서도 안정적인 구조로 재무 체질 개선을 이뤄낸 결과다.

카카오가 제시한 미래 인공지능(AI)의 지향점인 '에이전틱 AI'는 기존 AI가 정해진 과업만 수행하던 것과 달리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며 상황에 따라 능동적

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AI를 의미한다. 카카오는 에이전틱 AI 서비스와 생태계 확장을 통해 AI를 특정 영역에 국한된 기술이 아닌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활용되는 기술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카카오는 2025년 에이전틱 AI 구현을 위한 중요한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카카오는 대화 맥락 속에서 이용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카나나 인 카카오톡'과 오픈 AI와 공동 개발한 '챗GPT 포 카카오(ChatGPT for Kakao)'라는 두 가지 서비스 접점을 마련했다. '카나나 인 카카오톡'은 온디바이스 AI 모델을 활용해 이용자의 니즈를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요청하기 전에 먼저 필요한 정보나 액션을 능동적으로 제안한다.

또한 '챗GPT 포 카카오'는 이용자가 필요할 때 직접 AI 에이전트에 정보나 액션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카카오는 2026년에도 맥락 속에서 이용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카나나 서치'를 포함해 다양한 서비스에서 이용자와 에이전트의 접점을 선보일 예정이다.

카카오는 금융, 모빌리티 등 그룹사 주요 버티컬 서비스를 에이전트와 연동하고 외부 파트너들도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 '플레이(Play) MCP'와 'AI 에이전트 빌더'를 통해 AI 생태계를 확장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그룹 내·외부의 다양한 톨과 에이전트가 연결돼 이용자가 대화만으로 복잡한 목적을 달성하고 실행까지 완결하는 AI 경험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기반으로 카카오는 2026년부터 AI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는 중요한 신규 매출원으로 진화하는 모습을 시장에 보여줄 예정이다.

[김태성 기자]

김태성 기자(kts@mk.co.kr)

Copyright © 매일경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